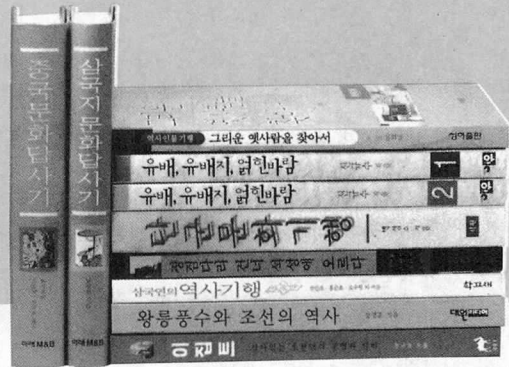


세월의 징검다리 건너 선인의 뉘 찾아가는 답사기

'보는' 여행에서 '읽는' 여행으로 변화...
개인의 감상보다 인문적 교양 부각시켜

서점의 취미·실용코너에 진치고 있던 여행서들이 인문이나 비소설 코너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나온 문화답사기들은 여행객들의 호사가 취미를 만족시켜주기보다는 역사와 문학, 그리고 인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인문적 교양으로 무장하고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행의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여행지가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여행기가 달라지고 있다. '보는' 여행에서 '읽는' 여행으로, '지리적' 여행에서 '문화적' 여행으로, '무작정' 여행에서 '주제별' 여행으로, '취미' 여행에서 '학습' 여행으로 여행기의 형식과 내용이 고급화·전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창작과비평사)가 물꼬를 튼 '인문적' 문화답사기가 21세기 여행객들의 동행자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나온 답사기들은 우선 여행지가 세분화됐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유배지, 석조건축물, 단군유적, 역사인물, 왕릉 등 국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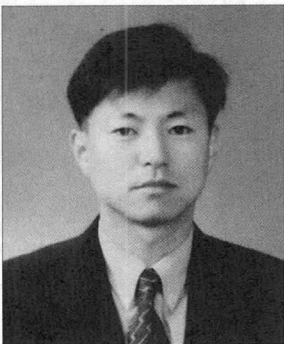
적지부터 이집트·중국 등의 해외 문화유적, 문학작품의 배경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또한 시각적 효과를 위해 도판을 실은 점, 여행객의 우수어린 감상보다는 인문적 교양을 부각시킨 점 등도 눈에 띈다.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의 생애와 발자취 찾기

국토가 국토인 까닭은 거기에 우리 삶의 무늬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때로 영광과 축복의 무늬일 수도 있지만, 비탄과 통

“《삼국지》에는 중국민중의 염원이 녹아 있다”

《삼국지 문화답사기》 펴낸 남덕현 교수



남덕현 교수(37, 부산대 중문과)가 펴낸 《삼국지 문화답사기》(미래M&B)는 소설의 무대가 됐던 장소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문학기행'의 형식이지만, 《삼국지》의 소설화 과정, 그와 관련된 민간신앙과 설화를 실증정신에 입각해 밝힌다는 점에서 '역사기행'에 가깝다.

— 《삼국지》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소설이다. 이렇게 허구적인 상상의 공간을 찾

아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삼국지》는 역사적 사실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한 소설이다. 그래서 소설 《삼국지》의 많은 소재와 현장은 동시에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특히 현실에 바탕을 두고 허구화된 부분을 찾아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삼국지》 독자와 문학 연구자에게 또 다른 흥미를 준다.”

— 이 책에서 특히 '《삼국지》 문화'를 강조했는데, 중국인들에게 《삼국지》가 차지

하는 문학적,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삼국지》 문화는 역사서 《삼국지》, 소설 《삼국지》, 민간의 전설로 구성된다. 역대로 교육받지 못한 중국의 민간인 계층과 현재 농촌지역에서 《삼국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교육받은 소수계층이 공자의 사상을 공부하고 실천하며 나라를 이끌어갔다면, 교육받지 못한 중국의 다수 민간인들은 그저 관우를 숭배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이다.”

— 답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의 심리구조를 추적하는 데도 힘썼는데, 《삼국지》 유적에 새겨져 있는 중국인들의 역사의식은 무엇인가.

“《삼국지》 문화는 한마디로 중국인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다가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일종의 자연스런 문화현상이다. 그러기에 《삼국지》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와 인물에 대한 서술은 전통적으로 중국 독자들의 심리구조와 인식구조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과 사건에 대한 평면적 이해보다는 그 이면에 깔린 독자들의 근원적인 심리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중국인들은 역사적 사실에서 단순히 그 결과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옹호시켜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 살고 있다.”

— 《삼국지》 유적을 답사하면서 책으로 느낄 수 없었던 감상을 얻었을 듯하다.

“우리가 단순히 《삼국지》를 소설의 흥미에만 국한시켜 이해해온 데 비해 중국인들에게는 관우문화로 대표되는 폭넓은 《삼국지》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한의 무늬일 수도 있다. 신규수의 《유배, 유배지, 얽힌 바람》(이우)은 권력의 박해에 쫓겨 절해고도에서 떠돌았던 유배된 자들의 생애와 그들의 자취를 따라간다. 단종의 한이 서린 영월 청령포, 추사체의 완성지인 제주도, 〈어부사시사〉의 절창을 낳은 보길도 등에서 권력에선 패자였지만 역사에선 승자로 남은 이들의 기구한 삶들이 되살아난다.

‘역사인물기행’을 부제로 단 《그리운 옛사람을 찾아서》(정희일, 성하출판)는 궁예·정여립·정조 등 우리 역사의 걸출한 인물들이 잠시 머물렀거나 지상의 거처를 마련했던 곳에 얽힌 전설과 일화, 그리고 현재의 퇴락한 모습 등을 담았다. 치밀한 고증보다는 역사적 상상력을 자유자재로 펼치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묘사력이 주목을 끈다.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죽음의 형식은 무덤으로 형상화된다. 조선시대 왕릉은 죽음에 대한 지배계층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다. 장영훈의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대원미디어)는 태조의 건원릉부터 고종·순종의 흥유릉까지 역대 왕릉터의 역사와 건립배경, 그리고 풍수적 의미를 짚어나간다.

예컨대, 연산군묘의 망주석 위치는 연산군에 대한 후대인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실마리다. 지은이에 따르면, 연산군의 묘에는 곡장과 망주석의 사이가 양쪽 모두 벌어져 있는데, 이는 혈장의 생기기운들을 빼버리게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종종이 연산군의 발목을 잡기 위해 연산군 묘의 석물을 이렇게 설치한 것이다.

유물·유적에서 한국의 정체성과 미의식 밝혀

답사기 가운데는 인물이 배후로 물러나고 유물·유적을 실마리 삼아 역사의 비밀을 캐내는 것도 있다. 《단군문화기행》(박성수, 서원)은 백두대간부터 일본열도까지 산재한 단군의 흔적을 훑으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을 캐묻는다. 《징검다리 건너 석성에 오르다》(박방룡 외, 다른세상)는 석축·석성, 돌다리, 고인돌, 석물 등 석조문화에 담긴 한국미의 원형을 탐사한다.

《단군문화기행》은 우리의 국토전체가 바로 단군의 성지였음을 입증한다. 원로 역사학자인 지은이는 백두산 천지, 태백산 정상, 천황단과 황지, 춘천의 우두산, 강화도의 참성단, 해남의 대흥사, 일본의 오키나와 등지를 답사하면서 우리 민족이 단군에서 기원하며 우리 국토에 단군을 숭상하고 흥인 인간의 정신을 간직하려는 열정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증언한다.

《징검다리...》는 우리의 석조유물에서 돌이 지닌 자연의 묘미를 살리려는 선인들의 지혜와 정교하고 과학적인 아름다움을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물줄기가 길을 가르고 절벽이 만남을 가를 때도 그곳 지형에 알맞은 돌다리를 설치하고, 그곳에 이무기들이나 귀면을 조각해 홍수 등의 재앙을 막고자 한 것에서 선조들의 미학적 감각을 읽어낸다.

탁월한 문학작품은 상상력을 자극하며 그 무대에서 보고 싶은

“독자의 지적 취향 만족시킬 답사기 필요하다”

미래M&B 이수애 편집장

1990년대 이후 문화답사기가 꾸준히 출간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의 경제력이 향상된 것과 밀접히 연관된다. 경제적 여유에 따라 여행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답사기들은 인문학적 교양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답사기와는 다르다. 미래M&B의 이수애 편집장(34)은 독자들의 수준이 높아진 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



“예전에는 즐기는 여행이 주류였다. 최근에는 독자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문학적 지식과 문학적 상상력이 결합돼 답사기 자체가 하나의 고급 상품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지역 중심의 답사여행보다는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세분화된 답사기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전의 답사기들이 개인의 감상이나 인상기에 머물고, 개인적 판단이 많이 개입됐다면, 최근에는 역사적 실증에도 충실하고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열어두고 있다고 이편집장은 평가한다.

“유홍준 교수의 책이 성공을 거둔 이후 답사기 붐이 일었다. 하지만 마치 박물관의 유물에 붙인 설명서 수준의 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전문가들이 참가해 수준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 답사기들이 많이 출간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편집장은 답사기에 비주얼한 편집과 디자인의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도 제안한다. 외국의 경우 답사기가 특화된 장르로 자리잡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초보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답사기 자체가 뛰어난 예술품이 되기 위해 전문필자와 편집자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열망을 일으킨다. 중국고전인 《삼국지》도 마찬가지다. 《삼국지 문화답사기》(남덕현, 미래M&B)는 유비·관우·장비·제갈량 등 중국의 걸출한 영웅들이 활약했던 곳을 누비면서 그들에 얽힌 신화와 전설, 유적 등을 답사하고 쓴 보고서다. 전인초 교수 등 8명의 중문학 전공자들이 쓴 《삼국연의 역사기행》(학고재)도 《삼국연의》의 역사와 허구의 현장을 답사하며 역사적 교훈을 이끌어낸다.

그밖에 이집트 고대문명의 흔적과 이집트인들의 현재 모습을 클로즈업해 관찰한 《이집트》(정규영, 다빈치), 중국의 현대 작가가 중국의 대지 위에 남아 있는 중국문화의 발자취를 따라 가며 쓴 《중국문화답사기》(위치우위, 유소영 외, 미래M&B) 등도 나와 있다.

이들 문화답사기들은 일상의 짐을 벗고 길을 떠나라고 독자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길 떠나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울까. 짐 싸들고 떠나는 것만이 여행은 아니다. 문자의 여행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총 가운데 하나다. 길의 유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행기를 찾는 독자들의 발길도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 박천홍 기자